

측근 둘러막기·호남 배제 '그들만의 개각'

■ MB, 집권 후반기 새진용

실무형 발탁했다지만... 지역편중 여전 내각·비서진 광주·전남 전멸 현실화



풍년기원 칠석 고싸움놀이 8일 광주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열린 광주칠석 고싸움놀이(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33호)에서 동부와 서부 출패자들이 풍년을 기원하며 헝거루기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진용을 위해 단행된 '5·6 개각'은 실무형으로 평가된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장수 장관을 교체하고, 부처 안팎의 전문가를 발탁했기 때문이다. 실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농업기술고시에 합격해 농촌진흥청장과 국립수목원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부원장에 발탁됐던 여성 과학자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교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관료 출신이며, 이재철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도 행사 출신의 노동부 인맥이다. 신임 장관 내정자 5명 중 정치인은 한 명도 없고 관료 출신이 3명, 학자 출신이 2명인 셈이다. 하지만 논란거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박재완 노동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것

은 전형적인 측근 인사 둘러막기란 지적이 제기된다. 박 장관은 현 정권 들어 청와대 정부·국정기획 수석, 노동부 장관, 재정부 장관으로 4번째 보직을 맡게 됐다. 특히, 광주·전남 출신 등 호남 인맥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은 반면 영남 출신은 3명이나 장관 내정자로 기용되면서 지역 민심은 들끓고 있다. 개각 이전부터 예상됐던 일이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도 '호남 배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관계 관계자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며 "이명박 정부가 호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정계에서는 4·27 재보선 패배라도 있었기 때문에 개각이 이 정도에서 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민심 이반에 대한

5.6 개각 장관 내정자 프로필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박재완 (56) · 현 고용노동부 장관 · 경남 마산 · 서울대 경제학과, 미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 행정고시(23회), 재무부 행정사무관, 대통령비서실 서기(17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 초대장무수석, 국정기획수석)	서규용 (63) · 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 충북 청주 · 고려대 농학과, 미 농무성대학원 · 농촌진흥청 차장, 농림부 차관, 농촌진흥청장, 농림부 차관, 한국야사회 상임감사,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유영숙 (56) · 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화학과, 동대학원 생화학과, 미 오리건주립대 생화학박사 ·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이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과학연구부장,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KIST 연구부원장	이재필 (55) · 현 고용노동부 차관 · 울산 울주 · 영남대 법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 행시 25회, 산업안전국장, 고용정책심의관, 고용정책본부 직업능력개발심의관, 노사협력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노사정책실장	권도엽 (58) · 현 국토해양부 제1차관 · 경북 의성 · 서울대 토목공학과 · 행시 21회, 건설교통부 도시총무과장, 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 국토정책국장, 주택관리실장, 전국도로공사 사장

고려가 없었다면 통일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도 류우의 전 주중대사와 권재진 민정수석 등 영남 출신의 측근들이 기용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 출신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오는 7월 검찰 인사와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명박 정부 내각이 김홍식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광주·전남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 나타난 '호남 배제' 기류는 이명박 대통령의 유립 순방 이후 이뤄질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석 비서관 및 비서관급 후보자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2명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박재완 행정자치부비서관이 유일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과학벨트 광주 유치 막판 스퍼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광주시를 비롯한 10개 후보지가 막바지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내주 중에 후보지 10곳을 다시 5곳으로 압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후보지는 중앙부처와 과학계 등을 대상으로 집회 개최, 홍보 활동 등으로 과학벨트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과학벨트 입지평가위는 후보지를 5곳으로 추린 뒤 오는 18일까지 거점지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후보 10곳에는 광주를 비롯해 대구와 대전, 부산, 울산, 창원, 포항, 청원, 구미, 전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후보지가 된 광주에서는 광주·전남 지역민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최종 유치를 위한 막판 분위가 조성돼 나가고 있다. 광주시는 과학벨트 유치 염원을 담은 250만 광주·전남지역민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9일 과학벨트추진위원회 교과부장관에게 전달한다. 광주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 불과 26일만인 6일 현재 248만명을 돌파했다. 광주·전남기독교교단협의회와 불교사암연합회, 대학교 총학생연합회 회장단, 문화계 인사

등도 최근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어 과학벨트 광주·전남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는 10년간 광산업을 육성, 산업화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 산업의 실증적인 경험이 있다"며 "부지 확보가 쉽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호남권에 과학벨트가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모든 산업의 인프라 구축으로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매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앨런 허거 캘리포니아 대 교수와 토머스 스타이즈 예일대 교수도 최근 과학벨트추진위원회 교과부장관에게 서한을 과학벨트추진위원회 교과부장관에게 전달했다. 광주과학기술원 내 신소재연구센터장인 허거 교수는 "광주에 과학벨트를 설치하는 것은 신소재연구센터가 풀러미 전자기구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고효율 풀러미 태양광전지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과학기술원 내 구조생물학연구센터장인 스타이즈 교수도 "과학벨트가 광주에 유치되면 구조생물학연구센터가 지금까지 실행해 온 연구를 확대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광주과학기술원과 협력을 통해 국가 성장과 기초과학역량을 강화하는 연구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권에서는 경북·울산·대구 3개 시·도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며, 부산과 경남 창원도 별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과학벨트 입지 장점을 자세히 소개하며 입소문을 내는 것은 물론,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입지여건 소개자료를 제공해 과학벨트 선정시 객관적 판단을 하도록 알리는 등 막판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과 충남, 충북은 과학벨트 후보에서 세종시가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력히 반발하면서 충청권 공동합력을 강화하고 세종시를 거점지구로 하는 입지 원칙을 확인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50만명 염원 담은 서명부 전달
노벨상 수상자들 광주·전남 지지
정부 내주 후보지 5곳 압축

"정부 부처간 협조
F1 적극 지원"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국무총리실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돼 향후 F1대회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조와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홍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EU FTA 통과와 내년도 예산안, 축산업 선진화방안 등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정부 지원 확대가 절실한 F1대회가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안건에 처음으로 채택, 장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고와 박종문 F1대회조직위 사무총장의 추가 설명 순서 등으로 이뤄졌다. 장 장관과 박 사무총장은 "F1대회가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인 만큼 예산 확보 등에 정부 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도 F1대회조직위 차원에서 F1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처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터가 지금까지 실행해 온 연구를 확대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광주과학기술원과 협력을 통해 국가 성장과 기초과학역량을 강화하는 연구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권에서는 경북·울산·대구 3개 시·도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며, 부산과 경남 창원도 별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과학벨트 입지 장점을 자세히 소개하며 입소문을 내는 것은 물론,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입지여건 소개자료를 제공해 과학벨트 선정시 객관적 판단을 하도록 알리는 등 막판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과 충남, 충북은 과학벨트 후보에서 세종시가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력히 반발하면서 충청권 공동합력을 강화하고 세종시를 거점지구로 하는 입지 원칙을 확인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국민과의 소통' 없인 百藥이 無效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234-3222 대표이사 최금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번지 FAX: (062)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제주도
오렌지리조트스타크루즈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2박3일 목포-제주도 ₩139,000원~
2박3일 장흥-제주도 ₩159,000원~
2박3일 항공-제주도 ₩249,000원~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후원: 아트랜드, 퍼시픽랜드

광주에서 출발하는 울릉도 1박2일 ₩279,000원~ 2박3일 ₩309,000원~
광주에서 출발하는 흥도 1박2일 ₩177,000원~

일본 큐슈 4일 5월 13일 단 하루!!!
"선착순 한정특가" 빌라형 콘도 2박 ₩199,000
불포함: 8선대식 1식, 기사&가이드팁 (₩30,000), 광주↔부산 수송비(₩30,000)

4일 야나가와 뱃놀이&큐슈온천여행 ₩299,000원~
출발일 5/29, 6/01, 6/05, 6/09

4일 일본의 전통료칸 카이세키요리를 맛볼수 있는 온천여행 ₩399,000원~

4일 오사카,와카야마 ₩699,000원~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30,000), 광주↔부산 수송비(₩30,000)

6일 **광주출발** 여름방학을 이용해 인천항에서 대인취리로 떠나는 고구려 역사탐방
대련 심양 백두산 고구려유적 ₩659,000원
출발일: 7/21, 23, 28, 8/6, 11, 13
불포함: 개인경비, 가이드&기사팁 2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여행금리 기안업체
*공통: 항공 및 선박, 전액비행/전액
*공동: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상품 1인원, 국내상품 5인원), 관광진흥세(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 여행(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숙박비,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